내가 벗어나야 남을 벗겨줄 수 있어

☞ 19면에서 계속

지고 나온 것이 공이자 색이고 색이자 공이니까, 그대로 그 공이 화두니라.' 한 겁니다. 내 육신 나온 것이 화두이자 공이고, 공이자 화두이니까 지금 원형을 이루고 돌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과거심도 현재심으로 돌아오고, 미래로는 아직 가지 않았으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대로, 내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고정됨이 없이 공하였으니 공에서 나오는 것을 화두로 삼고 그대로 공에다 일임해서 맡겨 놔라.' 이겁니다.

그러니 처음에 공부할 때는 모든 것을 근본에 맡겨놓고 오직 일심으로 믿고 들어갈 수 있어야 정신계의 50%와 물질계의 50%를 자기 자신이 자유스럽게 충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법귀일 일귀하처' 의 뜻

문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게 보통 화두문자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쉽게 일러 주셨으면 합니다.

답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뭘 먼 데서 찾습니까? 그대로 아닙니까? 한 사람이 스스로 열 가지 행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열 가지 행했다고 해도 줄지 않고, 만 가지 행을 한 것을 들여도 두드러지지 않죠. 우리 생활에 전체 들고나는 그 문은 하나이니까요. 문이라고 해서 이상스럽겠지만 말을 해야 하니 어쩌겠소?

여자는 여자의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자의 행을 해야 하고, 남자는 남자의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남자 행을 해야 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났으니 그게 바로 생활법이요, 그것이 참선이요, 그것이 행입니다. 하나로 들고 하나로 나고, 그게 그대로 행이에요. 여러분이 나오기 이전 그 자체도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콩 나무가 콩 씨를 찾는다고 해 봅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콩 씨가 콩 나무로 화한 줄 모르고 콩 씨를 바깥에서 찾으니 찾을 수 있나.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콩 나무에 열린 콩 씨가 하는 소리가 "이놈아! 그 콩 씨는 여기에다 두고 바깥에서 찾으면 어쩌느냐?" 하니까 "어허! 콩 씨가 여기 있네."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콩 나무가.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굼벵이가 매미가 됐는데 매미는 자기가 전자에 굼벵이였었다는 걸 모르고 굼벵이는 매미가 됐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게 한 꺼풀 한 교차로인데, 그 교차로를 통과를 시켜서 벗어나려고 우리는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를 틔우고 지혜를 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한마음에 들었다 한마음으로 내고 한마음에 들었다가 한마음으로 내는 거니까, 잘했든 못했든, 악이든 선이든 전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자기 주인공 그 하나에서 모든 게 들고난다는 그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수화풍과 오행설의 관계

문 스님, 저는 종교와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청년 법우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지수화풍 사대를 근간으로 해서 모든 것을 설명을 하고, 유교에서는 음양오행설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지수화풍과 오행설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가르침 바랍니다.

답 눈이 가는 데 귀가 가고 귀가는 데 눈이 가는 것을, 이름만 각각인 걸 가지고 뭘 이거니 저거니 따집니까? 직접 마음으로 먹고 싶으면 바로 먹는 걸 얘기하는데 아니 말이 왜 거기 붙어 돌아가겠습니까?

나는 오행설이 옳으니 사대가 옳으니 하는 말담을 하려고 이러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다 필요가 없어요. 수만 년을 한다 해도 말은 필요 없어요. 내가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아무리 해도 갖다 먹지 못한다면 그 소리를 수백 번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소리가 없었다 할지라도 내가 목마르면 그냥 갖다 먹는 것이 행이에요. 이 행을 못할지언대 아무리 여러 말이 있어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내서 탁 마시듯이 그렇게 마실 때 아무 이론이 거기 붙지 않듯이, 그게 바로 묘법이에요.

사람이 자기 몸뚱이 속에 그 많은 의식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빈집이라면, 집 주인이 없다면 그 속에서 막, 공장에서 파업을 일으키듯이 일으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병이 드는 거예요. 영계성이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또는 세균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집이 비었으니까 마음대로 들락거리거든요. 그런데 집 주인이 있다면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내 집주인부터 완전히 믿고 둘이 통해야, 하나가 되지, 하나가 됨으로써 또 바깥으로 둘 아닌 도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의 도리를 배우세요. 이론을 떠나서 내면의 보배를 찾으세요. 내면으로만 찾고 들어갈 수 있다면 마음이 평화스러워지고 내가 나를 발견해서 자유인이 되고,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을 한마음으로 리드하면서 화합을 가져오게 되고, 화합을 가져오게 되면 건강하게 되고 병이 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도리를 배워서 모든 것을 화합하게 할 수 있다면 내 가정도 화합과 또는 우애와 조화를 이루게 되고, 또는 나 하나도 그렇지만 세계도 조화를 이룰 수가 있고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가서는 이 지구의 수명도 늘이고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태양과 모든 월세계, 모든 혹성들도 나 아님이 없이 그 우주의 태양, 광대한 은하계, 그렇게 무수하게 많은 그 별들을 바로 요 한 점의 생각, 한 점의 생각으로 다 쌀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중세계에 나는 사람들은 부처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리권을 가졌기 때문에, 권리 행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의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무한의 능력을 여러분이 쓰지 못해서 못 쓰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첫째, 자기의 그 깊숙이 있는 한 점의 자기를 찾았을 때에 비로소 마음의 금궤를 찾을 수 있고, 자석도 찾을 수 있고 또는 자가발전소가 설치된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자가발전소 또는 자석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데 발견을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그 깊숙한 자기의 한 점을 찾기 위해 오직 힘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불경보다 세상사 가깝게 보여

문 도를 닦아야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스님들이나 도인 노릇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문화 생활도 알고 보면 다른 선각자들의 피눈물나는 땀과 지혜의 결실로 우리 후손들이 그 열매를 따 먹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과거보다 오늘이 배고픔을 모르고 병환에 덜 시달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학을 하는 사람, 문학을 하는 사람, 의학을 하는 사람 등등으로 인하여 오늘의 인간사회는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적인 발전이지 내적인 발전이냐 하고 반문하실 지 모르지만 절에 조용히 앉아 일체의 번민을 끊고 염불하시는 것도 중요하나 현실에 더 가까이 앉아 고통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나 불우한 이웃들의 냄새나는 대소변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내는 훌륭한 이웃들의 모습에서 진정 인간은 참으로 아름답다고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부처인척 하는 헛된 부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씨를 지성껏 심는 농부의 얼굴이 부처요, 공장에서 땀을 흘리며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우리 아버지들의 진지한 얼굴이 부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중생들의 삶과 멀리 계시는 스님들의 이야기는 항상 어려운 법문, 중생들에게는 선문답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에겐 세상사 걱정하는 갑남을녀의 진솔한 이야기가 불경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요.

답 지금 질문하신 분은 자신의 생각이 전체를 위하는 생각이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기에 옳다라고 생각을 하실 테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이것이 올바르고 저것은 틀리다고 세우는 생각이 나와 남을 가르고 자신을 고정시킨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개별적인 하나의 생각으로 산다면, 항상 그렇게 생각이 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만 보이게 될 겁니다.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낫다, 저것은 필요하고 이것은 필요치 않다, 이것은 좋은 일이고 저것은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가는 길이 있고 오는 길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반반씩 있다는 겁니다. 가는 길과 오는 길 이 두 개가 한데 합쳐서 작용을 해야 할 텐데 그렇게 작용을 못하는 까닭에, 사람들이 오는 것만 알고 되돌아가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고정관념에 가려서 살게 됩니다. 물질계와 정신계가 한데 합쳐져서 작용을 해야 보이지 않는데 50%에서 보이는 데로 나오게끔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빠졌어도 헤어나기가 힘들고 그냥 여지껏 물질 세계에서 살아 나온 관습, 인과, 업보, 유전 이런 걸로 꽉 뭉쳐서 돌아가니까 이게 부작용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같이 돌아가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공덕이 하나도 없단 얘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남도 도와주면서 서로 함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벗어나게 해 줄 겁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죽는 거를 가리지 않고 다 버린다면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다고 말입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이거는 된다 저거는 안된다 할 것도 없고, 이거 되게 해주쇼, 잘살게 해주쇼 잘 먹게 해주쇼 이럴 것도 없을 거고요. 나는 여러 세월을 돌아다니면서 불쌍한 사람도 알게 됐고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도 알게 됐고 인생 살아나가는 게 다 이렇고 측생 살아나가는 게 다 이렇고, 모두가 죄가 있다면 한 가지 모르는 게 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자기에게 그 위대한 보배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죄구나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알 수도 없어서 항상 껍데기의 노예가 돼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그러다가 벗어나지 못하게 돼서 또다시 또 구르고 또 구르고 그런다면 그 불쌍함을 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 먼저 밝히라고 했습니다. 꼭 스님이 됐다고 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장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가다 보면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건지게 돼 있습니다, 길에 가고 오다가도 건지게 돼 있고요. 얼마나 멋진 줄 아십니까? 남이 보기에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길에 다니다가 그런 모순된 일을 보게 될 때에, 길을 가다가도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참다운 인간의 본능과 자비와 더불어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기쁜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과 바꾸자고 해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한 마음 주인공이다 하는 것도 이런 포괄적인 하나이지 개별적인 하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같이 기쁨을 가지려 한다면 진정 알아야 되고, 진정 해야할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길이 내 생활과 따로 떨어져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을 살리는 속에 부처로 가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불법이라고도 했고요.

그러니 내 안의 근본의 능력을 진실로 믿고, 내 한생각에 나와 남을 더불어 함께 밝힐 수 있다면 더욱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한계 지워진 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찰나에 뛰어 넘을 수 있는 이 마음의 도리를 배워서 소중한 마음씨를 일체중생을 위해서 회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사랑하는 부모마음이 곧 부처

말썽피우는 자식 업식 녹이면 밝아



그림 · 최주현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四柱命理와 일반 五行術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易術活人天役者用」神示出刊
改訂增補版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17시까지 총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이 책을 더 밝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밝게 보실 수 있는 요령이 녹화테이프로 제작되어 60,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사오니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십시요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初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摘示)해 놓았습니다.
★해당 국수(局數)에, 붙어 오는 내용을 23가지 용건별(用件別)로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천역자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난해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당위의 시간만 펼쳐 보면 손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은 물론, 때로는 관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 · 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천화관이나 사람이나 무속점이나 한의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거나, 어디를 가서 만났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날 그시간만 보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 비칠 수 있게끔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천심이 악한지 순한지, ●나에게 이익을 사람인지, 피해나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이는 초사란에 적혀 있습니다.)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답안처럼 보면 알 수 있도록 제시해 놓아, 미리 그 내용을 지적하므로서 객사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편리上투사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 · 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관도는,

- 악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임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택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치료 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언제부터 차도가 있게 될 것인지 차당기 순조로울지 더딜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 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육임 세밀정단법 출시중

등에 대해서도 즉시 딱부러지게 알아 답변할 수 있도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객사의 사정을 探出해 놓아, 만나기나 전화할 시간만보면 그 사정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집안을 떠나 부재중일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열흘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호흡 및 表情을 미리 남짝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결지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器 · 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弄斷되지 않도록 음양오행가 · 무속인 · 스님 · 의사 등 活人專門人에게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 책 값 : 삼십오만원(₩350,000)
- 책 집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책크기는 가로21cm×세로30cm) (흑색 표지 · 양장제본 · 금박 · 190g레이지 · 白 색용지 · 옵셋인쇄)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 배 달 : 입금 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책배 우송해 드리므로 당일, 또는 그 이튿날 받아 보시게 됩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 강남구 수유 3동 190-49호 임신빌딩 401호

도서출판 복 문 대표 김 나 려
· 출판사등록번호 강남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천역자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 된 영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심망되실 때는 즉시 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은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 · 시(每日 · 時)별로 적시하여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葵卜子 神史선생님과 언제라도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동래식물원에서 신성북으로 100M쯤의「기원정사」에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卜 問 배상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 · 승진사 · 구재사 · 시험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소송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인사 · 상면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가격사 · 농경사 · 묘지사 · 기후사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寧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2004